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 강해

## 성도를 위한 기도 (에베소서 3:14-21)

## Prayer for all the saints (Ephesians 3:14-21)

사도 바울은 항상 동족의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언제든지 동족을 위한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이 구원 받기를 원했고, 이방인 또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The apostle Paul has always had an interest in the salvation of his same family. Accordingly, whenever he prayed, he always prayed first of all for his blood family. He wanted them to be saved. Likewise, he prayed as well as for the salvation of the Gentiles.

### 1.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

본문 14절의 '이러하므로'는 무슨 이유로 바울이 기도하는 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자기 지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것에 관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는 인간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기도로 만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구원을 보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굴러가는 두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목회의 기본도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이셨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 1. The reason why Paul prays

The word 'for this reason' in verse 14 explains the reason why Paul prayed. The reason was his knowledge of God's plan and purpose.

Paul started praying for God's plan by praying for a knowledge of it. Those who know God's plan and purposes will begin to pray that they will be achieved. God's plan is the unchangeable salvation of humanity.

God and human being meet through prayer. As a human being becomes certain of God's will, God guarantees a person's salvation through the process of prayer. When a person seeks after something that is contrary to God's will, they are essentially seeking their own desire in error. Therefore, we must always pray in accordance with God's revelation, namely, God's word. God's word and prayer are just like cogs in a wheel that turn together. There are no pastoral fundamentals without word and prayer. God at any point shows us His will through the Bible, and then in turn we ask God to work out His will through us through prayer.

### 2. 바울의 기도 내용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입니다.

- ①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16절)
- ②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하옵소서(17절)
- ③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18절)
- ④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19절)

### 2. The content of Paul's prayer

The content of Paul's prayer is as follows:

- 1) Strengthen us with power (v. 16).
- 2) Be rooted and established in love (v. 17).
- 3) Make us know Christ's love (v. 18),
- 4) Be filled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v.19)

### 3. 바울의 기도 대상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모든 족속의 아버지 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영광으로 꽉 차계신 모든 족속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보증된 기도입니다.

### 3. The object of Paul's prayer

The object of Paul's prayer is the God who is living. He is the Father of all kinsmen, and is working in them with power. This God, who is filled with glory to the measure of all fullness, is the Father of all kinsmen, and is working with power within us. Therefore, God is truly able to hear our prayers and answer us in perfect timing. Therefore, our prayers are guaranteed by God.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 속에 나타난 모든 영광, 영원 속에 나타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합니다.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조국과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Conclusion

Since all power comes directly from God, all glory must go back to Him. All glory has appeared in history, and in eternity all glory will return back to Him.

Before God, who is worthy of receiving all glory, I earnestly pray that you and I will pray for the church, for fellow Christians, for our nation, for our families, and for all individual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한국장로교회 미래방향 설정되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대표회장 이종운)는 지난 8월3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7-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장로교회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였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에 가입기로 운영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므로 한국교회가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치에 세움을 받게 했다. WRF는 종교개혁자들의 복음주의 신앙을 계승한 국제기구로 지난 4월 이종운 목사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총회 참석 후 가입을 추진해 왔다.

한편 2010장로교의 날에 제안한 한국장로교회 한국교단 다체제는 추진연구위원회를 구성기로 결의했다. 각 회원교단의 추천을 받은 지도자들이 연구추진하되 세미나 및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각 교단에 현 의기로 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는 「독도는 하나님인 주신 우리땅」이라는 현수막 또는 포스터를 전국 교회가 붙이도록 결의하고 이를 회원교단 총회에 협조 요청기로 했다.

## 성경통독사경회

9월22일(수) 오후1시 ~ 23일(목) 오후5시 / 창세기 ~ 사사기

성경통독사경회는 추석 연휴기간인 9월22일(수) 오후1시부터 23일(목) 오후5시까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며 교재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한다. 통독범위는 구약성경(창세기 ~ 사사기)이며 우리교회 교역자들이 강사로 선다. 회비는 1만원(식비, 간식비)으로 오늘부터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장애우와 노인복지를 위한 아가페타운 건립돕기

## 2010 사랑의 바자 / 9월9일(목) 오전 10시 개장

2010 사랑의 바자가 9일(목) 오전10시 개장예배를 시작으로 10일(금)까지 계속된다. 이번 사랑의 바자는 행복한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수익금은 교회목표중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해 쓰인다. 성도들의 기도로 준비되었고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바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한다. 기증품은 사무국에서 접수받고 있다. 한편 지난 주일로 마감된 사랑의 온도계 행사의 총 모금액은 764만원이고 지난주간 새로이 약정한 사랑나눔A+

캠페인 약정자는 다음과 같다.

- \*1% 나눔운동 참여약정자(팔호안은 운영기업명칭) 정진문(인텍코리아) / 고아라 고기성 박문옥 고요한(무지개CO)
- \*10% 절제운동 참여약정자(팔호안은 가족 또는 후원부모 이름) 강일선-강혜령(강진환 양정실) 김동규 김형주 마건우 심찬 양지훈(최성희) 이덕진 이용운 이홍숙 임광우(최미희 민정이) 정건-정서현(김영현) 정완진(김희순) 최명훈(최임수 노인숙) 최향봉

## 『칼빈길』 관련 설문조사

우리 서울교회는 프랑스 종교개혁가이자 사회개혁가이며 장로교 창시자인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 앞 '삼성로 서 73길'을 명예도로명인 "칼빈길"로 지정해줄 것을 강남구청에 청원한 바 있다. 이에 금년 강남구청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우선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2차로 실시하게 된다. 그런 다음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위원회를 소집하여 명예도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설문조사(전화 또는 방문)에 성도님들 특히, 강남구에 거주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육군 23사단 진중세례식

9월11일(토) 오후2시  
23사단 등대교회

23사단 진중세례식이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 주관으로 9월11일(토) 오후2시에 거행되며, 이날 설교는 박노철 목사가 담당한다. 당일 오전 7시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 2010 성경암송대회

10월17일(주) 교회학교별 예선  
10월22일(금) 본선 / 범위: 로마서 6-10장

이번 성경암송대회 범위는 로마서 6장부터 10장까지(개역개정판, NIV)이며 10월17일(주)에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갖고 선발된 이들은 본선에 참여하게 된다. 본선은 22일(금) 오후7시에 602호, 603호, 609호에서 3개조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24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시상 및 발표를 한다.

## 한 장로교단 속의 다체제에 대한 신학적 전거(典據)

순례자는 지난 7월 10일 제2회 장로교의 날에 제안한 '장로교 한 교단 다체제(多體制) 제도'에 대해 이종운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 회장)가 한국기독교정보에 특별기고한 것(계속 연재 중)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주>

**총론: 한 교단 다체제는 원시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환원운동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전 3:4)고 서로 계파를 지어 다투었을 때, 아볼로나 자기 자신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고전 3:5)일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고전 3:9)이라고 증언한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선택받아 부름 받은 '말씀의 사역자'들은,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개인이건 교파이건, 동

일한 성경을 믿고 사도신경과 개혁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제네바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등을 함께 하며, 복음전파(마 28:19-20)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파와 교역자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여러 갈래로 찢어지지 않는 이상, 두 개나 세 개의 교회가 있을 수 없다"(고전 1:13)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하나(1)의 한국장로교회(단)에 속한 서로 다른 교파(체제)'는 결코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오히려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다.

**가. '한 교단 다체제'가 성경신학, 역사신학적으로 타당한가?**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교회와 교회들(계 3:22)이 함께 쓰이는 것을 본다. 이는 주님의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모두 존중해 주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기독교 형성 초기부터 '하나(1)의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

파, 게바파 등 '서로 다른 계파'가 있었다. 아볼로와 바울과 베드로는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원시 초대교회, 곧 고린도 교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의 신앙 토대 위에 '아볼로', '바울', '게바'의 서로 다른 신앙표현, 곧 '서로 다른 신학'이 이미 상존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한 교회(=고린도 교회) 안의 서로 다른 신앙(신학)'은 '한 그리스도교의 서로 다른 야고보, 베드로, 요한 공동체로 확대되어 계파로 굳어졌다.'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모교회 공동체', 베드로 공동체 그리고 '요한 공동체'는 분명 서로 다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공동체의 신학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신학을 형성하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들의 신학을 신앙성경을 통하여 가감없이 그대로 전승하고 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이 정립되기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는 한 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 안에서 다양한 '신학'을 가진 서로 다른 교회 공동체(체제)를 형성하였다.

(다음호 계속)



목사이종운 · 박사이종운 - 목회자의 길 6

# 부흥강사, 22세 청년 이종운

산에 오른 후 불통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고 말씀묵상 후 기도를 하고 고 구마를 심고 물주는 일을 계속했다. 당시 학보병의 복무기간은 1년6개월이다. 제대1개월을 남겨놓고 금화중등학교원에서 심령부흥회를 열었다. 동시사람들을 초청하고 강사는 22세 청년 이종운이다. 금화 군청직원의 양복을 빌려 입고 넥타이는 매었지만 양복이 맞지 않아 반팔 양복 입은 느낌을 주었으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부흥회 둘째날밤 심혈을 기울여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서라고 초청의 말을 한 후 하나, 둘, 셋...스물다섯, 스물여섯을 세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젊은 나이지만 영양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밤11시까지 중등학교 강의와 새벽부터 실습, 낮시간엔 실새없이 흠어져 있는 군인들의 상담자로, 전도자로 뛰었으니 여기까지 지탱해 온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강대상 앞에 앉아 있던 두 내외가 순식간에 쫓아올라와 응급진료를 하고 곧 병원으로 운송되었다. 그 두 내외분은 의사들로 전주간에 금화 와수리에 이사와 병원 개업을 하고 오늘 부흥회에 참여한 성도들이었다. 할렐루야!



대학생 시절의 이종운 목사

이종운은 그 다음날 퇴원하고 다시 저녁에 예정대로 집회를 마쳤다. 대대장께서 이종운의 소식을 받고 그는 연대장에게 상신하여 이종운을 제대일 3주전에 귀가키로 결정했다.

심령부흥집회를 인도한 이종운은 또 한사람의 천사를 만난다. 위문품을 건기 위해 서을 이화여고를 방문시 당시 종교부장이셨던 오주경 선생님이 이종운을 보자 나는 평생 딸들만 키웠는데 내가 이선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

우는 일에 한 몫을 하고 싶다 하시고 여름방학에 이화 졸업생(대학생)들을 데리고 농촌전도단을 구성하여 강원도 금화를 방문하여 농촌전도사역 중 이종운의 전도집회에 참여했다가 연대장의 호의로 귀가 조치를 받은 이종운을 데리고 철원기도원으로 들어가 일주일동안 심신의 휴식을 취하게 한 후 귀가케 했다.

그 해 복학을 하기 위해 학교에 가보니 누가 이종운의 등록금을 이미 지불했다고 한다. 후일 안일이지만 오주경 선생님이 위문품을 거두기 위해 이화를 찾아온 이종운의 눈초리에 중압감마저 느꼈다면서 이 사람을 키우자는 생각을 굳히셨다 한다. 후에 감신대

총장을 지낸 변선훈목사가 교목이었는데 그는 현역 군목이면서 이화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변목사가 자매부대를 갖고 있는 학교에 찾아와 위문품을 달라고 하고 군목대위가 이등병 군중하사관을 향해 칠팔을 할 때 이종운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군목이면 전방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호통을 치며 자매부대 있는 학교는 다른 부대 돕지말라고 성경 어는 장에 기록되었느냐고 되물었다. 이때 오주경 선생님과 서명학 교장 선생님이 달려 나와 두 사람의 다툼을 말리면서 위문품과 위문편지를 드릴터이니 내일 채플시간에 와서 전방얘기를 해주시고 설교도 하라는 부탁을 받는다.

60세가 넘으신 오주경 선생님은 이종운을 아들처럼 돌보면서 여러차례 중매도 해주었지만 이종운은 목사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독신주의를 말 없이 고수해 왔다. 어쩔 수 없이 선을 보러 나가면 인사한번 하고 뒤돌아 나오는 일을 몇차례 하고 나니 오주경 선생님이 중매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주경 선생님은 너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지 라는 질문을 해왔다. 이종운은 소스라치게 교회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생각을 더듬었다.

(다음 호 계속)

말라위에서 온 감사 편지

## 서울교회의 허리케인이 말라위에



김용진 선교사(말라위)

마치 백 미터 달리기선수들이 총소리에 일제히 총력을 다해 목표를 향해 뛰어나가듯 서울교회 단기선교팀은 도착한 순간부터 이 곳에 머무는 동안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렇게 빨리 바리깡을 밀어대다가 머리가죽, 턱가죽 찢으면 어찌지, 약국코너에서 마스크까지 긴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민첩하게 약봉지를 나눠주는 꼬맹이들이(아영이 주영이 선우)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찌지, 말씀카드를 한 장이라도 더 받겠다고 초밀착하여 마구 밀어대는 아이들에게 꼼짝도 못할 지경으로 싸여 있다가 한꺼번에 다 같이 넘어지면 어찌지, 뭐 그런 걱정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어질 정도로 장거리 선수인 저는 34명의 단거리 선수들과의 지냈던 짧은 시간이 마치 허리케인에 강타당한듯 지금까지 멍합니다. 아무튼 이 대부대가 하나같이 최선을 다한 사역을 어떻게 짧은 지면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글을 쓰러니 법적거리던 날들이 새삼 그립습니다. 공항에서 배웅을 하고 돌아오던 때에 비하면 지



금은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지만 그래도 한 동안 후유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라위의 냄새와 소리가 단기선교팀의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는 속도와 거의 비슷하게 치유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워십댄스와 무언극에 큰 인상을 받았던지 이곳 재소자들이나 학생들도 퍼포먼스할 수 있게 대부분을 부탁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는 서울교회팀의 겸손함이었습니다. 말라위 사람들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놀거나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출렁거리며 뛰는 강강수월래 같은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도집회 나갔던 나미핑고 마을주민들은 노인들에게 대한 이들의 각별한 배려와 예우와 사랑을 보면

서 '성령의 사랑'으로 섬겼다고 표현 하더군요. 그러니 이 주변에서 저를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사역하기가 한결 수월해 진 것을 느낍니다. 선교팀이 복음의 씨를 제대로 뿌리고 간 것이지요.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널리 알려진 서울교회 선교팀의 헌신은 한국을 고마운 나라로 여겨지게 만들었고 선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압니다.

너무 짧았고 한 분 한 분과 충분한 사귀기를 갖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저로서는 파송교회 응원단의 충전을 받아 더욱 기쁘게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교팀과 함께 거하면서 내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흐뭇하셔서 그 한 주간 내내 입가에 미소를 띠고 계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 말라위 단기선교 CTS TV '열방을 향하여' 방영안내
- 본방: 10월16일(토) 오전10시50분
- 재방: 10월18일(월) 새벽4시, 10월19일(화) 오후7시50분

**말라위  
단기선교  
후원자 명단**

강낙훈 강민정 강운희 구희숙 권소희 권영철 권혁우 김민선 김병호 김성준 김시환 김영비 김은석 김은태 김재근 김재진 김종자 김준목 김태기 김형상 김혜란 김희정 남정열 노문환 노승성 도영미 박광옥 박찬성 박순복 박익선 박형수 서문석 손혜숙 손현순 송동선 송인주 송행희 신동기 신성근 신순애 신용식 신정순 안성현 안홍희 양금숙 양득춘 양준경 오교식 오정수 오종현 이상태 원명희 원용규 유남식 유순복 유은경 유래서 유혁근 유영근 이강인 이강진 이근대 이관모 이광영 이순영 이양철 이영기 이영조 이윤재 이준호 이화주 이현숙 임규현 임상현 장윤기 전광영 전수자 전현주 정수길 정인정호홍 제영진 조복자 조소영 조순영 주영도 지성철 차도훈 최경분 최미아 최병훈 최승순 최양진 최임수 최학인 하영수 하인선 함정희 허경화 홍순복 홍일성 황노전 황신우 무명 6명 전도위원회 교구위원회 제1권사회 제2권사회 제1세대반회 제2세대반회 아브라함 선교회 이삭 선교회 베드로 선교회 바울 선교회 리브가여전도회 한니여전도회 에스더여전도회 마리아여전도회 비바전도회 에바다부 사랑부 청년부 고등부교사 중등부교사 유치부교사 글로리아 임마누엘찬양대 말라위도교팀 1교구 13교구 5교구 9-2다락방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사랑의 바자를 준비하면서

# 거룩한 희생, 사랑나눔의 시작입니다

임상현 장로(바자위원장)



지난 주일 어떤 노권사님이 바자위원회 준비실 문을 두드리시면서 오래 전 교회바자에서 고가로 구입하였던 미술품을 '이제 다른 사람과 감상할 기회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며 기증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바자위원들은 박수를 치며 감사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바자는 이처럼 자신의 귀중한 것을 내어놓는 희생과,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희생하여 제출될 물품을 기쁨으로 구입하여 주는 또 하나의 거룩한 희생이 십자가처럼 서로 맞물리고 어우러져 이를 통해서 얻어진 열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하고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자준비위원들은 지난 3월 임명된 직후부터 약5개월간 기도로 이를 준비하여 왔고 올해부터는 새로이 조성된 한티공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먹거리장터를 교회 8층으로 옮겨 기존에 제공하던 식사류와 함께 다양한 메뉴의 푸드코트를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 교구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질 좋은 음식물을 즐

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특히 일반 매장에서 1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8층 푸드코트에서 제공하는 팹티기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하기로 하였으니 꼭 한번씩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이벤트 행사로서 전라남도 지사가 보증하는 '남도미향 정정 특산물코너'를 1층 교회 앞마당에 설치하여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준비할만한 견어물, 한과, 과일 등 풍성한 상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올해에도 위임목사님의 저서를 대폭 할인하여 판매하는 사인행사가 802호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 저서사인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퇴를 앞둔 위임 목사님과 함께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대의 합창으로 드린다. 류충기집사의 지휘와 강민정집사의 오르간, 양경실집사의 피아노 반주, 이하진선생의 팀파니로 '하늘의 아버지 (P.K.Biggs)', '시편 150편 (A.Randegger)' 등 네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로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바자매장을 돌아본 후 확인도장을 받아 오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준비된 경품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각 교구에서는 교구장과 간사들이 중심이 되어 예년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준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이번 바자행사에 임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제1, 2스데반 회원들과 피택집사님들은 그동안 철저히 제작하여 사용하던 상품판매대를 전량 기법고 미려한 재질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주시는 등 전 교회적인 도움의 손길이 담지하고 있습니다.

성도여러분은 물론 주위의 많은 이웃이 함께 사랑의 바자현장을 찾아 거룩한 희생과 낭비로 아가페다운을 위한 사랑나눔에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9.5(주일) 의림교회 김명현 목사 위임식 설교를 한다. 9.6(월) 제95회 총회 (9.6-9.10) 참석차 경남 창원으로 출타한다. 김광신, 오정수, 장로가 서울 강남노히 총대로 함께 한다. 박노철 목사는 11일(토) 23사단 진중세례식을 집례한다.

- 수상: 15교구 우혜원 성도 "아르프-슈니트거 오르간 콩쿨" Grasberg 장학금 수상
- 14교구 김양연 성도(2부예배 피아니스트)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합창단 반주자로 9월부터 봉사한다.
- 특남: 11교구 이성민 성도 김소영 성도(김광룡집사 장녀)

- 주간식당 봉사: 제2스데반회(9.5) 제1권사회(9.12)
- 금주의 식사: 이관규 장로 이순영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30분	
세 벽 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성경대학을 시작하며

##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삶

노현상 목사

우리는 가치관 혼돈 시대에 살고 있다. 때론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마저 모호할 때가 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백성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인 동시에 이 땅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하는 시민이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하늘나라의 법과 이 땅의 법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물론 아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한다. 정경은 라틴어로 Canon이란 말인데, 이 말은 막대기나 자를 의미하나 상징적으로 기준 또는 규범을 의미한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재는 자이다.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재는 자이기도 하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다.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세상 한복판에

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삶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올 하반기에도 어김없이 성경대학이 서울교회에서 진행된다. 서울교회는 반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부목사님들의 지도로 성경대학을 진행하고 있다. 성경 66권 중 한 권을 택하여 순수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마가복음, 에스터,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성경통독반이 각 부목사님들에 의해 인도된다. 이미 언급한 대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자,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따라서 성경을 모르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모호해지며 혼돈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황금의 입이라 불리었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의 결핍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근원지가 된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아는 지식의 결핍은 성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것들의 근원지가 되기도 한다. 성경을 깊이 알아가길 소원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대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2010 사랑의 바자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4. 38학기 목회자 세미나, 성경대학 등 열린프로그램 많은 열매 맺도록
5. 1교단 다체제 한국장로교회 거듭나기 위하여

### 교회외시는 길

